

NEW  
IMAGINATION

새로운 상상

2025  
BYUCKSAN MAGAZINE

부  
속  
지

## CONTENTS

- 04 CEO Letter
- 08 Trend ON
- 12 Byucksan ON
- 16 Change Maker
- 20 Issue & Insight
- 24 Dictionary
- 26 Hot Topic
- 28 B Mindset
- 30 B Sharing
- 31 B NEWS
- 32 Story With
- 34 Story G
- 38 B Network

### 도담터 2025년호

발행 및 편집인 김성식 발행처 서울시 중구 퇴계로 307 광희빌딩

TEL. 02-2260-6114 www.byucksan.com

발행일 2025년 10월 1일 담당자 피플 & 컬처팀 김준희 선임매니저 02-2260-6131

기획·디자인 PEOPLE PAGE 02-6674-0111

실린 글과 사진은 작가의 의견으로 백산과 의견이 다를 수 있으며, 사용 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물리적 한계를 넘어, 생각이 닿는 가장 먼 지점까지 나아가는 일. 그 여정의 시작은 언제나 익숙함을 벗어난 새로운 상상에서 비롯됩니다. 2025년 <도담터>의 주제를 '새로운 상상'으로 설정한 이유입니다. 다가올 삶의 방식과 공간의 변화, 기술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까지 백산이 바라보는 미래는 거창한 선언이 아닌, 지금 이곳에서 던지는 작은 질문들과 실천에서 자라납니다. 기술과 사람, 환경이 어우러지는 미래 공간에 대한 탐색부터 일과 조직, 일상을 대하는 태도의 전환까지. 우리는 유연한 시도와 열린 질문을 통해,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새로운 상상을 이어갑니다.

## 상상력으로 여는 벽산의 미래

(주)벽산, (주)하츠 대표이사  
CEO 김성식



## 기술과 세계를 향한 새로운 도전

인류의 진보는 한 개인의 상상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벽산 역시 변화의 기로에서, 설비 중심의 과거를 넘어 기술 집약적 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새로운 상상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제, 남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독자적 역량과 창의적 사업 모델로 벽산의 다음 75년을 힘차게 열어갈 때입니다.

한 개인의 상상력, 혹은 꿈꾸는 능력은 인류 진보의 원동력이었으며, 오늘날의 현대 사회를 가능하게 한 힘이기도 합니다. 가까운 예로,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 개발을 통해 인류의 탈(脫) 화석연료 시대를 열었고, 알렉산더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은 세균성 질환 치료에 혁명을 가져왔으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현대 물리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이 모든 업적은 한 개인의 상상과 깊은 고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대한 성취를 가능하게 한 '상상'은 특별한 몇몇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평범한 개인이 문제의식을 갖고, 현상과 사물을 주의 깊게 바라보며, 비록 그 파급 효과가 작을지라도 새로운 발견과 개선점을 창의적으로 찾으려는 모든 노력이 인류 역사를 진보시키는 '생산적 상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의식'을 가지고 일상에서 끊임없이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는 구성원이 많은 공동체일수록 인류 사회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75년의 역사를 가진 영리 조직인 벽산과, 그 벽산을 품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는 현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꼽자면, 첫째, 저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 현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둘째, 성장 위주의 정부 정책과 사회적 분위기가 경제의 저성장 기조 및 사회 가치관 변화와 맞물려, 분배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역동적인 활동과 상충하는 각종 환경 및 노동 규제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생산 능력의 과잉과 미국과의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의 가격 덩핑 공세는 국내 제조업, 특히 기간산업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사회와 벽산이 생존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번영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상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NEW IMAGINATION

혁신은 기술 집약적 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독자적인 기술 역량 확보와 창의적 사업 모델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적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NEW IMAGINATION

## 1

## 설비 집약에서 기술 집약으로

우리나라의 산업화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노동 및 설비 집약적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표준화된 설비에서 대량으로 저렴하게 제품을 생산해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전형적인 부가가치 창출 방식이었습니다. 혁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해외에서 기계 설비를 도입하고,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 생산하여 공급자 우위의 지위를 누리며 지금까지 경영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전자재 산업 특성상 막대한 운송비로 인해,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경쟁력마저도 상실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중국 경제의 공급 과잉, 심각한 불경기, 그리고 체제 안정을 위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혁신의 생산원가를 훨씬 밑도는 가격으로 중국산 제품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수백억 원을 투자해 기계를 설치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 집약적 방식은 더 이상 혁신의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생산 관련 경쟁력은 이제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장을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혁신은 이제 남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기술 중심 기업으로 변모해야 하며, 스스로 미래상을 새롭게 그려야 합니다. 실제로 경쟁력 있는 다수의 국내 기업들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첨단 분야에서 활동하며 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독자적인 지적 재산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되어야만 혁신의 다음 75년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회사의 기술 역량 축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 NEW IMAGINATION

## 2

## 한국에서 세계로

영리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세계 시장 진출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현재 혁신 매출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수출 역시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수입 제품에 대해 진입 장벽이 되었던 운송비는, 수출의 경우 오히려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만약 국내 생산 전자재로 충분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면, 업태를 변경해서라도 해외에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혁신이 어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매출의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미래를 상상해 봅니다. 특히 미주 시장에서의 매출 증대는 혁신의 세계 진출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어떤 업종에서 어떤 인재를 발굴하고, 어떤 방법으로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사전 준비 없이 일이 닥쳐서야 추진하면, 돌이킬 수 없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숨겨진 리스크를 미리 발견하고, 이를 관리·회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술 집약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로 세계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K-Culture 열풍을 보면, 경쟁국이나 경쟁기업이 갖지 못한 고유하고 독특한 역량을 바탕으로, 큰 투자 없이도 세계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의 현재 업태는 대규모 설비 투자 없이는 글로벌 시장 진출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해외 기업 인수 역시 과도한 투자와 리스크가 수반됩니다.

K-Pop, 드라마, 음식, 영화 등과 같이 모방이 어렵고, 독보적인 역량을 갖춘 사업 모델을 구상해 최소한의 운영비로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수익 구조를 만들어, 전 세계를 무대로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의 다음 75년을 기분 좋게 상상해 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기본이 되는 옷과 음식, 집. 의식주. 의식주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 형태나 취향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다. 음식 조리법이 발달했고, 옷은 소재의 발달과 더불어 유행이 바뀐다. 집은 어떨까? 외부환경으로부터 가족을 지키는 생활 거점에서 이제는 의료 서비스를 받거나 원격 제어하는 등의 종합 서비스 공간이자 인프라 거점으로 변화하고 있다. 현실이 되는 상상 속 미래형 주거공간을 소개한다.

## 상상으로 설계하고 기술로 짓는 집

글 조성익(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교수, TRU건축사사무소 대표)

### 산업과 기술의 만남: 주거 혁신의 새로운 주역들

“냉장고가 집 밖에서도 열린다면 어떨까?” 이 흥미로운 질문은 도쿄에서 열린 전시 HOUSE VISION에서 실제로 구현되었다. 외벽에 설치한 냉장고는 안팎 모두에 문이 달려 있어, 실내에서도 내용물을 꺼낼 수 있고, 집 밖에서도 넣거나 가져갈 수 있었다. 단지 콘셉트 모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냉장고를 적용한 주택은 관객들 사이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구조는 특히 신선식품이나 음식 배달에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낮에 배달인이 외벽 냉장고를 냉동식품을 배송하면 집주인이 퇴근해서 수령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상자에 식품과 함께 냉동제를 넣어, 새벽과 같은 특정 시간 위주로 배송하던 신선식품 회사의 물류 방식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즉, 이 집은 단순히 냉장고의 위치를 바꾼 기발한 콘셉트에 그치지 않는다. 주거와 물류 산업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 주거를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군이 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시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냉장고 주택은 디자이너 시바타 후미에의 설계와 일본 대표 물류 기업 야마토 홀딩스의 협력으로 구현되었다. 1919년에 창업한 야마토는 택배, 정보 시스템, 결제, 생활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기업이다. 종합 물류회사가 주거 설계에 적극 참여하며 ‘집’의 미래 변화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 즉, 주거 혁신이 더 이상 건축가나 건설사만의 영역이 아님을 보여준다. 네트워크 기술, 물류 시스템, 자동 제어, 로봇공학 같은 첨단 분야는 더 이상 ‘집 밖의 기술’이 아니다. 이들은 집을 자신들의 기술이 축적되는 플랫폼이자 일상 속 실험실로 바라보고 있다.

HOUSE VISION 전시를 기획한 디자이너 하라 켄야 역시 이 흐름을 감지하고 주거의 미래에 관한 거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는 이제 집을 하나의 ‘자원’으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지나가는 바람을 활용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풍력 에너지 산업이 생기듯, 밀집된 집을 자원으로 인식하는 순간 전혀 새로운 산업적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각 산업 분야가 각자 개발 중인 미래 기술을 주거라는 자원과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지 살펴볼 것을 권한다.

### 재택 의료의 부상: 주거와 의료 산업의 혁신적 결합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의사가 환자의 집으로 찾아가는 왕진은 매우 일상적인 의료 행위였다. 의사는 환자뿐 아니라 그의 거주 공간을 살펴보며 병의 ‘맥락’을 이해하고 진료했다. 그러나 병원이 대형화되고 의료가 산업화되면서, 병원은 점점 이런 인간적인 치료가 어려워졌다. 병원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좁고 답답한 병상, 맛있는 병원식, 긴 대기줄이 있는 복도를 보고 있으면 정상적인 사람도 우울해진다. 입원은 감염, 심리적 우울감 같은 추가적 위험도 수반한다. 병원이 항상 치유에 적합한 공간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간이 바로 ‘집’이다. 최근 등장한 ‘재택 병원Hospital at Home, HaH’ 시스템은 전통적 입원 치료의 실질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환자실 수준의 처치가 필요하지 않은 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진이 집으로 직접 방문해 필요한 장비와 통신기기를 설치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사용법을 교육한다. 진단과 치료 계획은 온라인으로 대면하며 함께 논의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HaH는 입원 치료보다 비용이 낮고 진료 횟수도 적었다. 환자들은 병원보다 더 활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고, 치료 성과도 더 뛰어났다. 익숙하고 편안한 내 집에서 치료받는 것이

오히려 건강 회복에 유리하다는 사실이 점차 입증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격리 공간이 필요했던 경험을 떠올려보면, 집은 훌륭한 대체 공간이 될 수 있다. 노년층 인구가 증가하고 의료인이 부족한 미래를 고려할 때 집은 병원의 공간 수요를 분산하는 훌륭한 대안이 될 것이다. 물론 모든 치료가 가정에서 가능하진 않다. 효과적인 재택 치료를 위해서는 환기, 채광, 전력 공급, 의료 보조 공간 등의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따라서 향후의 주거, 특히 시니어 주택과 같은 특화된 유형에서는 재택 의료 시스템의 설치가 용이한 구조와 공용 치료실 같은 기능적 공간을 함께 설치해야 할 것이다. 주거와 의료의 결합은 이제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조건이 되고 있다.

### 모빌리티와 주거의 융합

미래 주거와 융합될 또 하나의 핵심 산업은 바로 모빌리티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주차된 채로 머무는 자동차, 그리고 그것을 위해 마련된 아파트의 대형 지하 주차장—이런 전통적인 방식은 머지않아 과거의 풍경이 될지도 모른다. 앞으로의 주거는 개인화된 이동 수단과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 유기적으로 외부 세계와 연결될 것이다. 덴마크 건축회사 BIG는 최근 일본 토요타와 함께 ‘토요타 우븐 시티Toyota Woven City’라는 도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후지산 기슭, 시즈오카 현의 옛 공장 부지를 활용해 조성 중인 이 실험 도시는 ‘모빌리티의 미래’를 실현하고 실험하는 세계 최초의 도시 인큐베이터다. 즉, 우븐 시티는 단순한 스마트시티가 아니다. 자율주행, 연결성, 수소 연료 인프라, 그리고 다양한 산업 간 협업을 실제 환경 속에서 시험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살아있는 실험실’이다. 이 도시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며, 차량과 대체 이동

수단을 찾아내기 위해 건설되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 프로젝트가 제안하는 혁신적인 주거 단지 설계다. 도시의 도로망은 인간의 이동 속도를 기준으로 세 가지로 구분되며, 이들은 서로 ‘역이동’ 배치된다. 빠르게 움직이는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도로,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위한 레크리에이션 산책로,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머무는 선형 공원으로 구성된다. 이는 단지 교통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보행자 중심의 일상과 자연 친화적 삶을 함께 엮어내려는 시도다. 기존 아파트 단지가 차량과 보행자를 분리하기 위해 애썼다면, 우븐 시티는 반대로 보행자와 차가 혼용해도 안전한 도로 체계를 만들었다. 거주자는 일상에서 이동 수단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예컨대 차를 몰고 마트에 가는 대신, 산책을 겸해 나간 길에서 물건을 사고, 모빌리티를 호출해 집으로 돌아오는 방식의 생활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모빌리티 기술의 변화는 단순히 이동 수단의 발전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주거 구조의 재편과 도시 설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질문이 되었다. 이제는 자동차 회사가 세계적인 건축가와 협업하여 자사의 이름을 내건 도시를 창조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 기존 건설사들의 움직임: 유연성의 극대화

물류회사, 의료업계, 자동차 회사가 주거와 도시 환경을 재설계하는 시대가 왔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 속에서 기존 아파트를 공급해 오던 건설사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이들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주거 구조, 즉 ‘유연성Flexibility’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삼성물산이 추진 중인 ‘넥스트 홈’이다.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공간이 변화하는 집’을 표방하는 이 주거 모델은 기존 아파트의 일반적인 벽식 구조를

탈피하고, 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넥스트 라멘 구조’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이 구조 위에 거주자의 취향과 필요에 따라 생활 공간을 조립하듯 채워 넣는 ‘인필In-Fill 시스템’을 적용해 공간 구성의 자유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

삼성물산은 이를 통해 거주자의 삶에 맞춰 공간이 능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단순한 사용자 편의성을 넘어서는 함의가 있다. 유연한 구조 시스템은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인프라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들은 조립형 건식 바닥재와 벽체를 개발해 손쉽게 해체·재설치할 수 있게 했으며, 가구 자체가 벽처럼 기능하는 자립식 시스템 가구도 도입했다. 이는 콘크리트를 부어 만드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마치 부품을 조립하듯 주거를 완성하는 새로운 건자재 산업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집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점점 더 ‘제품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건축 요소를 생산하던 건자재 회사들이 자동차 부품 회사처럼 유통·조립·교체 가능한 제품군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흐름에서 보면, 오랫동안 건자재를 다뤄온 기업들—예컨대 벽산 같은—이 주거 개발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건자재 산업도 프리패브 건축, 조립식 건축 변화에 맞추어 주거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비전을 세워야 한다. 모든 공간을 조립의 개념으로 재해석한 ‘조립 주거’, ‘조립 도시’ 같은 비전을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

주거의 미래는 더 이상 건설사만의 영역이 아니다. 냉장고를 만들던 가전회사가 집을 설계하고, 물류 기업이나 모빌리티 기업이 주거 플랫폼을 개발하며, 콘텐츠 기업이 라이프스타일 기반의 주택을 제안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결국 미래의 주거는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여러 산업이 함께 엮이는 융합의 결과물이다. 누구든 자신 일에 새로운 주거를 대입해 볼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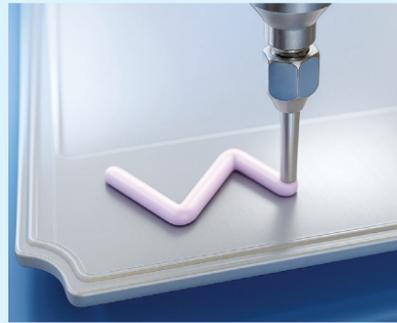
#### 글을 쓴 조성익 교수는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교수이자 TRU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가로, 서울대와 예일대에서 건축을 공부했다. 사회 초년생을 위한 코리빙 주거 <맹그로브 송인>으로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을 받았으며, 저서로는 『건축가의 공간 일기』,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 실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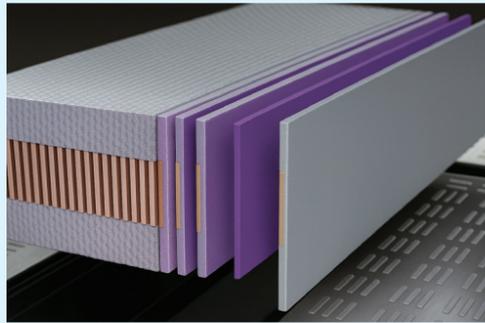
기업도 생명체처럼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때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다. 벽산은 제조 중심의 전통을 넘어, 전자-에너지 분야 첨단소재 개발에 집중하는 기술 중심 기업으로 전환 중이다. 그 중심에는 사람과 조직문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기술 혁신이 있다.

## 기술 중심, 사람 중심으로 진화하는 벽산

글 이제철 (벽산 기술연구소 소장)



1 갭 필러



2 내화격벽



3 벽산 기술연구소

### 격변의 시대, 기업 생존의 조건은 '적응력'

수천만 년 전 빙하기는 지구의 질서를 송두리째 바꾸었다. 거대한 공룡은 멸종했고, 작고 민첩한 포유류는 살아남아 인류로 진화했다. 이 역사적 전환은 오늘날의 기업 환경에도 깊은 시사점을 준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진화하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진리는 지금의 산업 현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최근 산업 전반은 디지털 전환과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안주한 전통 기업들은 급변하는 시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며 경쟁력을 잃고 있는 반면, 기술 기반의 민첩한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 질서를 주도하고 있다. GE, IBM, 히타치 등 대표적인 글로벌 제조기업들은 디지털 전략을 추진했음에도 기술기업들과의 민첩성과 실행력의 격차로 구조조정과 수익성 악화라는 난관에 직면했다. GM, 코닥, 모토로라, 메릴린치와 같은 기업들은 결국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퇴장했다.

반면 변화 속에서도 재도약에 성공한 기업들도 있다. 소니는 한때 경영 위기를 겪었지만, 이미지 센서·게임·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집중하며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중심 기업으로 체질을 바꾸어 다시 시장의 중심에 섰다. 이는 기술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전략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전통 기업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아마존, 넷플릭스, 테슬라, 엔비디아 등 기술 중심의 신형 기업들은 단순한 제품 혁신을 넘어 시장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다. 아마존은 유통을 넘어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으로, 넷플릭스는 스트리밍을 통해 콘텐츠 산업을 재편했고, 테슬라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로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는 AI 알고리즘과 반도체 설계 기술만으로 반도체 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도약했다.

국내 기업들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고 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급 과잉과 기술 리더십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용 HBM 기술을 기반으로 엔비디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며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유통 산업에서도 월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등 전통 오프라인 채널이 디지털 전환의 타이밍을 놓친 사이, 아마존과 쿠팡은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물류 자동화와 당일 배송 시스템으로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했다.

결국 기업의 흥망성쇠는 기술을 '보유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실행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은 과거의 방식에 의존하기보다 기술 중심 조직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그 전환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다.

### 벽산 기술연구소, 혁신의 엔진이 되다

벽산은 오랜 시간 축적한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기술 중심 기업으로의 체질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건축자재 분야에서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자복합소재, 2차전지용 복합소재, 친환경 기능성 신소재 등 고부가가치 첨단 소재 분야로 기술의 외연을 확장하며 성장의 새로운 축을 다지고 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벽산 기술연구소가 있다. 기술연구소는 단순한 제품 개발 조직을 넘어 고객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솔루션 중심의 기술 조직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벽산의 미래 성장동력을 책임지는 핵심 축으로서 산업 트렌드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다. 기술연구소는 건축자재 분야에서 축적한 무기소재 합성 및 복합화 기술을 토대로 전자-에너지 산업에서 요구되는 고기능성 첨단 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 기기와 2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급격한 기술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실용성과 시장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차세대 소재 연구와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전자소재 분야에서는 CMFColor, Material, Finish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접착제와 기능성 코팅 소재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개발 중인 핵심 부품·소재는 다음과 같다.

- ① 스마트폰 후면 커버용 글라스 접착제
- ② 광학 특성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저고굴절 코팅액
- ③ OCA(광학 투명 접착제)의 내구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고기능성 코팅제

개발 진행 중인 전자부품 소재는 고접착력, 내열성, 고투광율, 황변 방지 등 복합 기능을 요구하는 분야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글로벌 모바일 부품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2차전지 소재 분야에서도 벽산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전기차 확산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2차전지용 복합소재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고출력·고집적화되는 배터리 시스템 내에서 안정적인 열관리는 제품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기술연구소는 현재 다음과 같은 2차전지용 부품 소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 ① 열관리 성능을 극대화한 갭 필러Gap Filler
- ② 충격흡수 및 방열을 위한 갭 패드Gap Pad
- ③ 열폭주 확산을 지연시키는 내화 면압패드Fire-Resistant Compression Pad

이들 소재는 높은 열전도율과 내화 성능을 바탕으로 배터리 셀 간의 열 균형을 유지하고, 충격 흡수와 화재 확산 억제에 기여함으로써 전기자동차 및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의 안정성과 수명 향상에



4 글라스 접합제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벽산은 이러한 기술을 단순한 부품 개발을 넘어 시스템 통합 솔루션으로 발전시키며,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신뢰성과 양산성 확보를 목표로 지속적인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 기술 중심 조직의 완성, 답은 '사람'에 있다

기술 중심의 전환은 기술연구소만의 노력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기술이 조직 전반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기술 중심 사고방식이 기업 문화로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 벽산은 자율성과 실험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전과 혁신을 장려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문화가 바로 벽산 기술혁신의 밑바탕이다. 결국 기술과 자본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다. 벽산은 인재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유연한 조직문화를 통해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아가는 혁신 조직으로 진화하고 있다. 연구원들은 글로벌 트렌드를 읽고 기술 융합적 사고로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도적 역량을 키우며, 신속한 판단과 실행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벽산은 과거 외환위기라는 거센 파고를 유연한 전략으로 극복한 경험이 있다. 이제는 생존을 넘어, 기술과 사람을 기반으로 도약을 준비하는 시기가.

# GO GLOBAL! WE GO TO TEXAS!

글 최종항 전무

2024년, 벽산은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법인 Elim Brontier를 설립하며 본격적인 글로벌 진출에 나섰다. 신성장 산업과의 연결을 모색하며 영우화스너 인수, 스타트업 협업, 텍사스·LA 거점 운영 등 실행을 가속화하고 있다. 100년 기업을 향한 여정, 이제 벽산은 미국에서 그 미래를 설계한다.



###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변화의 씨앗

2020년 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회사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1월 8일부터 7박 8일 일정으로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행사에 참석하는 출장을 떠나게 되었다. 건축자재를 주력으로 하는 벽산이 첨단 소프트웨어 기술의 중심지인 실리콘밸리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어두운 태평양 밤바다를 건넌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하지만 현지에서 마주한 실리콘밸리의 벤처 생태계와, 그 안에서 치열하게 꿈을 키우고 있던 스타트업 창업자들과의 만남은 우리 일행에게 큰 문화적 충격과 도전 의식을 안겨주었다. 이 출장을 계기로, 지난 6년간 벽산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다. 한국과 미국의 신뢰할 만한 벤처펀드에 출자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전자재와 부동산 분야를 넘어 AI, 2차전지, 기후변화 관련 농업, 바이오 등 미래 성장 산업의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POC(Proof of Concept)와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실리콘밸리 생태계와의 인연은 신성장 산업의 흐름을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현장의 생생한 움직임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며, 벽산의 경계 역시 꾸준히 확장되고 있다. 머지않아 이 여정을 통해 함께한 벤처펀드와 스타트업들로부터 의미 있는 결실이 맺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미국 진출, 텍사스 오스틴에 법인을 설립하다

최근 몇 년간,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며 자국 중심의 패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펼쳐왔다. 국내의 경제적 동력만으로는 미래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새로운 산업 성장과 질서의 중심이 될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벽산은 2024년 9월,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Elim Brontier\*라는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 벽산이 직접 투자하여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내 스타트업 BuildBlock\*\*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계기로, 미국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지역인 텍사스에 글로벌 진출의 베이스캠프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텍사스는 현재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의 중심지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주정부의 기업 친화적 정책과 함께 법인세가 없고, 풍부한 천연가스과 재생에너지 기반의 낮은 에너지 비용은 기업 입장에서 큰 매력이다. 또한 물류 및 유통의 요충지로서 숙련된 노동력과 인재 확보가 용이하며, 반도체, 전기차, 친환경 에너지, AI, 바이오 헬스, 항공우주 산업 등 다양한 미래 성장 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 벽산은 이러한 환경을 활용해 글로벌 사업 역량을 본격적으로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 영우화스너 인수, 실행을 위한 든든한 기반 확보

벽산은 2023년부터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전략 프로젝트 그룹을 운영해 왔으며, 2024년에는 투자전략팀을 신설하여 미국 시장과 신성장 산업 진출을 위한 M&A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첫 성과로, 2025년 5월에는 안정적인 이익 구조를 보유한 영우화스너를 인수했다. 이 회사는 중국 공장과 대만·동남아 지역의 상품 소싱 기반을 바탕으로, LA에 위치한 해외법인을 통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미국 시장에서 창출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미 미국 내 탄탄한 영업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영우화스너는 벽산그룹의 글로벌 시장 진입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핵심 역량을 빠르게 축적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특히 전자재 분야에서 벽산과의 다양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신성장 사업 진입을 위한 플랫폼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LA에 위치한 영우화스너 현지 법인에 벽산그룹 차원의 주재원을 파견한다. 동시에 텍사스 오스틴에는 투자전략팀을 중심으로 임시 사무소를 개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국에서의 상품 및 원부자재 소싱을 더욱 효율화하기 위해, 벽산·하츠·영우화스너 3사의 공동 중국 출장소 운영도 검토하고 있다. 이제는 책상 앞에서 전략만 설계하는 시대를 넘어,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며 글로벌 진출을 실현해야 할 때다. 타깃 산업 탐색, 현지 인증 및 테스트, R&D 협력 네트워크 구축, 생산·소싱 체계 확보, 지적재산권 관리, 로컬 파트너십 발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다.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행하는 용기가 더 중요한 시점이다.

### 미래를 만드는 상상, 그리고 실행

텍사스 오스틴과 LA를 거점으로, AI, 로봇, 2차전지, 기후 기술, 에너지, 농업, 바이오 등 다양한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 건설 및 무인 공장에 활용되는 휴머노이드 및 웨어러블 로봇 서비스를 미국 전역에 공급하는 기업, ESS·2차전지·우주항공 산업에 필수적인



실리콘밸리 출장 당시 임프리메드 임직원 대표(가운데 파란색 옷)와 스탠포드 대학 내 사무실에서 기념촬영을 하였다.

경량·단열·내화 신소재를 개발 및 납품하는 기업, 텍사스의 드넓은 태양광 패널 폐기물을 수거해 GW 원료로 재활용하는 순환경제 기업 등과의 협력이 그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는 더 이상 막연한 청사진이 아니다. 이제는 직접 보고, 만나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단계에 들어섰다. 벽산그룹은 이제 100년 기업을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시장에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글로벌 확장에 나선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 스스로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 꿈이 있어야 한다. 그 설레는 꿈을 위하여, Go Global! We Go To TEXAS!

\*Elim Brontier Elim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뒤 두 번째로 진을 친 오아시스로, 열두 생과 칠십 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던 곳(출 15:22~27). Brontier는 Byucksan(벽산)과 Frontier(개척자 정신)의 합성어로, 벽산의 글로벌 개척 의지를 상징한다.

\*\*BuildBlock 아시아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내 부동산 중개·운용·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계 스타트업.

# JAEYUNG ARCHITECT

단독주택, 주유소, 공장, 오피스, 오피스텔.  
 임재용 건축가는 우리 도시 풍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공간에 새로운 상상력을  
 불어넣으며 건축적 실험을 거듭해 왔다.  
 그에게 새로움이란 단순히 외관적  
 아름다움이나 창의적 발상이 아니다.  
 오히려 시대 흐름을 감각하고 그것을 정확히  
 반영했을 때 획득되는 찬사에 가깝다.  
 30여 년간 변화하는 시대와 도시, 건축 간의  
 긴밀한 대화를 이어온 건축사사무소 OCA  
 대표 임재용 건축가를 만났다.

글 편집실 사진 한상훈

## 시대 변화를 가로지르는 건축적 상상력

‘건축사사무소 OCA 대표’ ‘다수의 건축상 수상자’ 등 많은 수석어  
중에서 스스로를 ‘새로운 유형을 만드는 건축가’로 정의하셨습니다.

건축물은 반드시 그 시대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건축가는  
 시대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그 결과를 철저히 반영해 새로운  
 유형을 제시해야 합니다. 형태적으로 재기 발랄한 건축물도 물론  
 매력 있습니다만,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아닙니다. 저는 프로그램적  
 재해석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단지 외형적인 독특함만 있는 경우에는  
 선뜻 눈길이 가지 않습니다. 최근 지난 30여 년간의 여정을 담은  
 책을 펴내며, 제목을 『건축가 임재용의 시대감각』으로 지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건축가가 시대의 흐름을 포착하고 새로운 유형을  
 제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힌트는 먼 데 있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상, 우연히 떠난 여행, 전시와 공연. 이런 작은  
 포인트들이 상상력을 자극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향점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주유소 프로젝트들이 떠오르네요.  
 제게는 전환점이 되어준 작업입니다. 2006년 서울 중구 장충동의  
 서울석유 사옥을 설계하며 ‘옥내 주유소’를 제안했는데요. 건축물이  
 도시 풍경을 단절시키지 않을 방법을 고심한 끝에 주유소 위에  
 건물을 올리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내에선 처음이었죠. 서울석유  
 사옥 작업이 좋은 평가를 받으며 연속성 있게 비슷한 작업을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과정이 저에게는 셀프 주유, 드라이브 스루,  
 전기차의 도입 등 변화하는 시대상을 포착해 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주었고, 그것을 반영하고 새로운 유형을 고심하며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대에 따라 변화해 온 우리  
 사회의 단면을 관찰하고, 새로운 유형을 제시하는 일이 가능했던  
 것은 건축가로서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OCA 건축사무소 대표 건축가 임재용



임재용 건축가는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미시간대 건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공공분야 대상, 2020 iF 디자인  
 어워드, ARCACIA 어워드  
 금상, 한국건축문화대상,  
 한국건축가협회상 등 다수의 상을  
 받았다. 새로운 유형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사회 변화와 건축의  
 관계를 깊이 있게 성찰해 왔다.  
 최근 저서로는 『건축가 임재용의  
 시대감각』(동녘)이 있다.

건축적 상상력을 공공성의 개념으로도 확장해 오셨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_\_\_\_\_ 제가 공공성의 풍경에 관심을 가지기 전과 후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작품 사진에 사람이 등장하느냐, 하지 않느냐?’입니다. 전에는 건축물 그 자체로 공간은 완성되고, 사람은 장애물에 불과하다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반대입니다. 건축물을 비워내고 사람이 그곳을 채울 때 비로소 도시의 풍경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가는 그러한 ‘풍경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도 어느 멋진 공간을 방문했을 때 “건축가는 어떤 풍경을 떠올리며 이러한 공간을 만들었을까?”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았으면 합니다.

그러한 지향점들이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으로 더 탄력받았을 듯합니다. 작업에 대해 이야기 해주신다면요.

\_\_\_\_\_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공공분야 대상을 수상한 ‘시립장지하나어린이집’은 하나금융그룹이 추진한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어졌습니다. 공공시설임에도 민관 합작으로 진행되었기에 상상력을 펼쳐 보일 기회가 많았습니다. 미술관 등 전시 공간이 아닌 어린이집이라는 일상적인 건축물로 공공분야 건축상을 받은 것에는 이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저는 이곳의 마당을 설계하며 다양한 사람들이 즐겁게 들고 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등·하원 시간에 아이들이 전동킥보드나 자전거를 타거나, 학부모들이 서로 답소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보행자가 그늘에서 잠시 쉬거나 비를 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웃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마당이 어린이집과 주변 도시 공간을 연결하며 공공성의 풍경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기존 어린이집의 틀을 깬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어떻게 접근했는지 궁금합니다.

\_\_\_\_\_ 아파트는 전 국민의 약 80%가 거주하는 주거 형태임에도 아이들이 공동체의 삶을 경험할 공간은 턱 없이 부족합니다. 마음껏 뛰어놀 마당과 골목길은 없고, 그나마 있는 도로에는 위험한 자동차가 가득합니다. 문득 ‘미래 세대 아이들은 마을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를 수 있겠다, 사전적 의미는 알라도 경험한 적은 없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달랐습니다. 1990년대까지 만해도 전 국민의 약 85%가 단독주택에 거주했으니까요. 방문을 열면 마당이 나오고 대문 밖을 나서면 골목길이 나오는, 온 동네가 하나의 놀이터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떠올린 질문은 ‘어린이집에 골목과 마당이 있으면 안 되는 걸까?’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주변에 담장을 두른 형태가 많은데요. 저는 그런 프라이버시가 유지되면서도 개방감 있는 외부 공간을 다양하게 설계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를 다시 만들고자 한 것이죠. 시립장지하나어린이집은 그런 아이디어와 고민을 구현해 간 결과입니다.

건축가님의 상상력은 막연한 영감보다는 일상적인 관찰과 연구에서 비롯하는 듯합니다. \_\_\_\_\_ 맞습니다. 새로운 유형은 거대한 건축적 담론에서 탄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에서 나오는 작은 상상력과 사소한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주유소 위에 건물을 올리면 안 되나?” “공장 내부에 중정이 있으면 안 되나?” “사무실 모든 층에 테라스가 있으면 안 되나?” 모두 제가 건축가로서 제안해 온 새로운 유형에 시작이 되어준 질문들입니다.

그러한 상상력으로 지금의 도시 풍경을 돌아본다면요. \_\_\_\_\_

현재 우리 도시 풍경의 문제점은 ‘비움’이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휴식하며 채울 수 있는 여백의 공간이 없습니다. 자동차로 가득한 차로와 빌딩 숲 사이 간신히 남아 있는 좁은 보도, 그 위를 가볍게 걷는 시민들... 지금은 모든 것이 발달한 시대이지만, 역설적으로 1990년대 낭만적인 우리 골목길 풍경 또는 유럽 도시의 길거리 풍경은 그 시대 자동차 수가 적었거나 구조상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시각에서 보면 대다수의 공공시설 또한 턱없이 이기적입니다.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 건물을 휴식하는 마음으로 방문하는 시민이 얼마나 될까요? 시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공간임에도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어 일상적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유형의 건축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_\_\_\_\_ 우리의 도시 풍경을 바꾸는 일은 도로를 자동차가 아닌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연도형 상가, 마포구 연남동의 선형 도심 공간은 기능 중심의 도시계획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공간을 형상화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나의 필지에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건축가 또한 ‘비워낼’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최근 진행한 모든 프로젝트에 이런 설계를 도입하고 풍요로운 도시 풍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대지의 전면을 시민에게 개방하면 용적률을 20%까지 늘려주는 제도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건축주를 설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지향점을 담은 프로젝트가 있다면요. \_\_\_\_\_

\_\_\_\_\_ ‘서리풀 개방형 수장고 지명 현상설계’에서 지상층 대부분과 건물의 외부공간을 전부 시민에 공개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건축물을 세우고 시민들이 비움의 공간을 채워가며 공공성의 풍경을 만드는 안이었는데요. 아쉽게도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실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공공성의 풍경을 조성하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인프라스트럭처 Infrastructure 생산이나 생활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구조물. 도로, 항만, 철도, 발전소, 통신 시설 따위의 산업 기반과 학교, 병원, 상·하수 처리 따위의 생활 기반이 있다.



새로운 유형은 거대한 건축적 담론에서 탄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에서 나오는 작은 상상력과 사소한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 아파트도 레고처럼? MODULAR

##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모듈러 건축 시대

모듈러 건축은 이미 선진국에서 고층 주거시설까지 확산하며 건설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국내에서도 규제 개선과 인식 전환, 기술 발전이 맞물리며 '눈 깜짝할 사이'에 초고층 아파트가 완성되는 시대가 머지않았다. '레고'처럼 쌓아 올리는 집, 그 상상 속의 현장이 이제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오고 있다.

글 편집실

### 산업과 기술의 만남: 주거 혁신의 새로운 주역들

"이제 고층 아파트도 공장에서 조립해 올린다"는 말이 더는 과장이 아니다. 한때 '저층 임시건물'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모듈러 건축이 이제는 10층을 넘어 20~30층 규모의 초고층 주거시설로 진화하고 있다. 모듈러 건축은 건축 현장이 아닌 공장에서 주요 부재(部材)의 70% 이상을 사전 제작한 뒤, 이를 현장으로 운반해 조립·설치하는 OSC(오프사이트 건축) 공법의 한 형태다. 공장에서 벽체, 지붕, 전기 설비, 실내 마감까지 대부분을 완성한 후, 현장에서는 기초공사를 마친 뒤 이 모듈들을 크레인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리기만 하면 된다. 이 방식은 날씨나 인력 부족, 자재 지연 등 기존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며, 시공 기간도 일반 현장 시공에 비해 최대 절반까지 단축된다. 또한 공장에서의 제작 덕분에 품질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현장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어 건설 폐기물이나 소음 등 환경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다. 더 나아가, 공장 생산 과정에서는 에너지 효율이 높고, 현장 운송과 작업이 줄어들면서 탄소 배출량도 기존 대비 40~45%까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정밀한 공장 생산 덕분에 하자율이 낮고, 현장 인력이 적게 투입돼 안전사고 위험도 현저히 줄어드는 것이 큰 장점이다.

### 해외에서 먼저 앞서가는 모듈러 건축

모듈러 건축의 기술적 한계를 돌파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뉴욕 브루클린에 위치한 'B2 타워'가 있다. 총 32층, 363피트(약 110m)의 이 건물은 세계 최초의 고층 모듈러 아파트로, 약 930개의 모듈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했다. 전체 세대의 절반 이상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술적 도전뿐 아니라 사회적 역할에서도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고 글로벌 모듈러 건축 확산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아시아에서도 고층 모듈러 건축의 가능성을 증명한 사례가 있다. 싱가포르의 '클레멘트 캐노피 Clement Canopy'는 40층, 140미터 높이의 콘크리트 모듈러 아파트로, 약 1,900개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모듈이 사용되었다. 시공 기간을 전통 방식보다 25% 이상 단축하는 데 성공했으며, 모듈러 건축이 프리미엄 주거 시장에도 적합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상징적 프로젝트로 평가받는다. 모듈러 건축은 도시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캐나다 밴쿠버는 홈리스 및 저소득층을 위한 임시 및 영구 주거 공간을 모듈러 방식으로 구축하며, 도시 재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2~3층 규모의 이 주택들은 공장에서 제작되어 신속히 설치되며, 필요에 따라 이동과 확장이 자유자재로

# CONSTRUCTION



- 1 사전 제작한 모듈을 현장으로 운송해 조립하는 모습
- 2 환경적 제약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모듈 조립 현장



1



2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상업적 효율성을 극대화한 사례로는 독일의 '모텔 원 Motel One' 체인이 있다. 이들은 객실을 공장에서 완성한 뒤 현장에서 빠르게 조립해 완공하는 방식을 도입했으며, 객실 내부의 인테리어와 가구까지 사전 완비되어 있다. 이로 인해 호텔 개장까지의 시간이 대폭 단축되었으며, 동시에 품질 관리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듈러 건축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로는 영국 런던의 '박스파크 Boxpark'를 들 수 있다. 해상 운송용 컨테이너를 재활용해 구성된 이 팝업 쇼핑몰은 임시 공간으로서 활용도가 뛰어나며, 설치와 해체가 간편하다. 특히 쇼어디치, 크로이든 등 다양한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며, 도시 재생과 상업 활성화의 선례로 자리 잡고 있다.

**빠르고 친환경적인 건축, 국내에도 '모듈러'가 대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모듈러 건축의 자재 재활용률은 약 90%에 달하며, 폐기율은 5%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 전체 폐기물 발생량 중 약 46%가 건설 폐기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모듈러 건축은 친환경 미래 건축의 핵심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인구 집중과 가구 형태의 다양화로 세대수가 증가하면서 주택 수요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급난도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대규모 택지 개발이나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기존의 공급 방식은 통상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수요를 적시에 감당하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듈러 건축은 보다 유연하고 신속한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히 존재한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3



4

- 3 공장에서 완성한 객실 모듈을 현장에서 신속히 조립해 운영하는 독일의 '모텔 원(Motel One)'
- 4 해상 컨테이너를 재활용해 조성된 런던의 팝업 쇼핑몰 '박스파크(Boxpark)' 전경

13층 이상의 건물은 엄격한 내화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제품 기술력 확보는 여전히 큰 도전 과제다. 또한 모듈 운반 시 도로 사정이나 중장비 접근성에 따라 모듈의 크기와 형태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초기 투자 비용이 높아 공사비가 전통적 방식보다 약 30%가량 더 드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더불어 국내 건축법과 인증 체계는 현장 시공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공장 제작 방식인 모듈러 건축에 적합한 별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조립식=임시·저품질'이라는 오래된 인식 역시 극복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실제로는 공장 기반의 정밀한 품질 관리 덕분에 오히려 내구성과 안전성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공장 설비와 물류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초기 자본과 모듈러 규격화로 설계의 자유도가 제한되는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건설사들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NH는 2027년까지 세종시에 450가구 규모의 모듈러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며, 지난 4월에는 국내 최고층 모듈러 건물인 22층 규모의 '의왕초평 A-4블록' 건본주택을 완성하고 전문가 품평회를 열었다. GS건설은 자회사 GPC와 함께 30층 이상 건축이 가능한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 시험 건축물을 완공해 고층 모듈러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현재까지 국내에 완공된 최고층 모듈러 건물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한 경기 용인의 13층 규모 '영덕 경기행복주택'이다. 한화 건설부문은 대규모 모듈러 도시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라크 비스야마 신도시 건설 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 중이며, 2030년까지 총 10만 8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다. 현재까지 약 3만 가구가 완공되었다. 삼성물산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인도네시아와 우크라이나 등지에서 모듈러 건축 사업을 전개하며 해외 시장 공략에도 나서고 있다. 한편, 모듈러 주택은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다. NH는 올해 1,000가구 규모의 모듈러 공공임대주택을 발주하고, 2026년부터는 연간 3,000가구 수준으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처럼 모듈러 건축은 친환경성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국내 주택 시장의 유연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고층화, 대형화가 가능한 기술적 진화와 함께 제도 개선, 인식 전환이 병행된다면, 미래 도시 주거의 주요 해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익숙함을 넘어서 낯선 아름다움, 해체주의 건축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공간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해체주의 건축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 흐름을 주도한 대표적인 건축가와 주요 건축물을 소개한다. 더불어 앞으로 해체주의 건축이 지닌 가능성과 미래 전망에 대해서도 함께 고찰한다.

# 해체주의 건축,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미학

글 편집실



1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2 루이비통 메종 서울

## 기존의 건축 질서와 원리를 깨부순 건축

해체주의 건축은 1980년대에 등장한 포스트모던 건축의 한 흐름이다. 기존 건축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던 질서, 조화, 대칭 같은 규칙을 일부러 깨트리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그대로 건물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해체해서, 파편화된 형태와 예측 불가능한 공간을 만들어낸다. 해체주의 건축의 가장 큰 특징은 파편화된 형태다. 벽, 기둥, 창문 등 각 요소가 마치 분해되어 흩어진 것처럼 보인다. 건물이 한 덩어리로 보이지 않고 여러 조각이 모여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대칭이나 반복적인 패턴 대신 일부러 비틀고, 기울이고, 예상치 못한 각도로 설계한다. 덕분에 건물이 마치 움직이거나 변형되는 듯한 동적인 느낌을 준다. 내부 공간 역시 기존처럼 규칙적으로 배치하지 않는다. 각 공간이 서로 다르게 연결되어 있어, 방문자가 걸을 때마다 새로운 공간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런 해체주의 건축은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의 '해체' 이론에서 영향을 받았다. 언어와 의미, 건축의 전통적 규칙을 해체하고 새롭게 해석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했다. 현대미술처럼 건축도 더 이상

정해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반영된 결과다. 해체주의 건축은 겉보기엔 혼란스럽고 엉망진창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정교한 구조 계산과 첨단 기술이 뒷받침된다. 결국 해체주의 건축은 “건물은 꼭 네모여야 할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상상력과 실험정신이 가득한 건축 스타일이다. 기존의 틀을 깨고, 보는 사람에게 신선한 충격과 재미, 그리고 새로운 공간 경험을 선사한다.

## 획일화된 형태에서 벗어난 해체주의 건축 걸작들

해체주의를 대표하는 건축가로는 프랭크 게리, 자하 하디드, 피터 아이젠만, 다니엘 리베스킨트, 렘 콜하스, 베르나르 추미, 쿵 힘멜블라우 등이 있다. 프랭크 게리는 곡선과 파편화된 형태, 금속과 유리 등 새로운 재료의 활용으로 해체주의 건축의 상징적 존재가 됐다. 그의 대표작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은 비정형적 외관과 역동적 공간감으로 도시 재생의 상징이 되었고, '빌바오 효과'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 1989년 완공된 비트라 디자인 박물관은



3 파리 라빌레트 공원

“해체주의 건축의 힘은 형태에 대한 우리의 사고를 교란시키는 데 있다.”

— 필립 존슨 Philip Johnson



4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



5 헤이다르 알리에프 센터

프랭크 게리가 건축가로서 인지도를 높인 계기가 된 작품이다. 독일의 가구공장 단지 내 위치한 이 의사 박물관의 기하학적이고 자유분방한 외관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건축 스타일이 입체파와 같은 느낌을 주는 해체주의적 양식인 것을 인지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해, 그는 건축계의 노벨상인 프리츠커상을 수상하게 된다. 국내 해체주의 건축의 대표작 역시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루이비통 메종 서울'이다. 2019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 완공된 이 건축물은 해체주의 건축이 한국 도시 풍경에 남긴 가장 인상적인 흔적으로 평가받는다. 유리 와 금속 소재를 활용한 비기하학적 외관, 곡선과 사선이 교차하는 역동적인 형태가 특징이다. 내부는 리테일 공간과 갤러리 기능이 결합되어, 단순한 매장 이상의 공간 경험을 제공하며, 건축 그 자체가 예술적 오브제로 기능한다. 자하 하디드는 날카로운 사선과 곡선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비트라 소방서, 헤이다르 알리에프 센터 등에서 해체주의의 조형적 실험을 보여준다. 다니엘 리베스킨트는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 드레스덴 군사역사박물관 등에서 역사와 기억, 감정을 건축적 형태로

해석한다. 피터 아이젠만은 해체주의 이론을 건축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며 하우스 시리즈 등에서 개념적 실험을 이어갔다. 렘 콜하스와 베르나르 추미, 쿵 힘멜블라우 역시 각각 시애틀 중앙 도서관, 파리 라빌레트 공원, BMW 벨트 등에서 해체주의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했다.

## 다양성을 추구하는 미래 건축의 중심

해체주의 건축은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기 쉽고, 도시마다 독특한 분위기와 개성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해체주의는 예술적이고 독특한 외관을 중시하지만, 최근에는 실용성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앞으로는 해체주의 디자인과 실용적인 공간이 결합한 건축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친환경 소재나 3D 프린팅 같은 첨단 기술과도 잘 어울려서, 지속가능한 건축을 만드는 데도 쓰일 수 있다. 물론 해체주의 건축은 시공비가 많이 들고, 구조적으로 복잡해서 실제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하지만 미래 건축에서 예술성과 창의성, 기술 융합을 보여주는 중요한 스타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 이런 조합이 가능하다고? 건설업, 경계를 허물다

보수적이고 딱딱하다는 건설업의 이미지는 이제 옛말. 최근 건설사들은 식품, IT, 예술 등 전혀 다른 분야와 협업하며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상상도 못했던 만남에서 탄생한 이색 프로젝트들을 소개한다.

글 편집실



2

## “아재 점퍼”를 벗다, 스타일 입은 작업복의 진화

현장에서는 이제 ‘아재 점퍼’ 대신 스타일리시한 항공 점퍼를 입는다. 현대건설은 워크웨어 브랜드 ‘볼디스트’와 함께 고기능성 항공 점퍼를 제작했다. 독일 프라이덴버그社의 고급 패딩 충전재를 사용하고, 공구를 수납할 수 있는 10개의 포켓도 장착됐다. 무엇보다 CI(기업 로고)를 벨크로 패치로 부착할 수 있어, 팀 로고나 개성 있는 아이템으로 자유롭게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실용성과 개성을 모두 살린 ‘단체복 혁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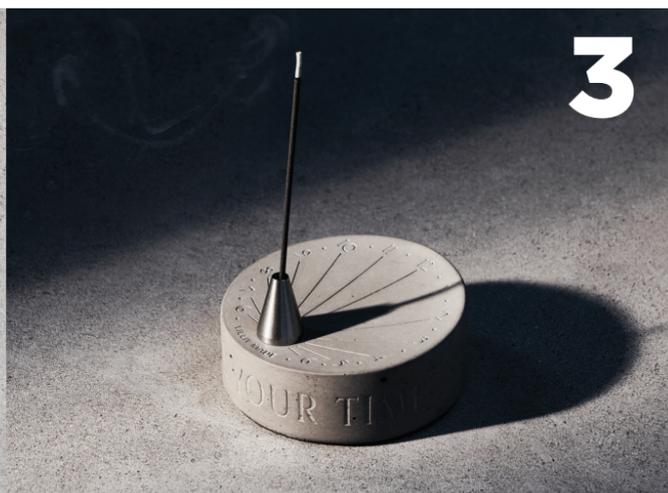
1

## 현장의 흔적이 오브제로, 폐자재의 감각적 변신

HS화성은 미디어 아티스트 금민정 작가의 향기 굿즈 브랜드 ‘지오아트굿즈’와 협업해 콘크리트 디퓨저를 제작했다. 폐콘크리트를 업사이클링해 만든 디퓨저 홀더와 사탕수수 잔여물로 만든 친환경 패키지. 여기에 시트러스와 우디 향이 어우러진 감각적인 조합이 돋보인다. 이 제품은 ‘iF 디자인 어워드 2025’에서 본상을 수상하며 국제적으로도 디자인 가치를 인정받았다.

## 향기로 다시 태어난 건설 폐기물

건설 현장의 폐기물이 예술로 재탄생했다. 신세계건설은 디자인 그룹 ‘모빌스’와 함께 건설 폐자재를 활용해 감각적인 인센스 키트를 제작했다. 버려질 뻔한 자재가 멋진 오브제로, 향기로 공간을 채우는 작품이 되는 순간. 건설과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다.



3



4

## 향으로 전하는 브랜드 철학

브랜드의 정체성을 향으로 구현할 수도 있다. 대우건설은 향기 마케팅 전문기업 ‘센트온’과 함께 브랜드 시그니처 향 THE MONUMENT를 개발했다. 유칼립투스과 허브의 상쾌한 탑 노트, 난초와 클로브의 고급스러운 미들 노트, 소나무와 머스크의 깊은 베이스 노트가 조화를 이루며 브랜드의 가치와 철학을 후각으로 전달한다.

6

## 단지 안에서 만나는 생활 로봇의 시대

현대건설은 자율주행 로봇 스타트업 ‘모빈’과 손잡고 실내외 통합 로봇 배송 서비스를 개발, 지난 6월 준공된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에 처음으로 적용했다. 도로-지하주차장-공동 출입문-엘리베이터-세대 현관까지 전 구간을 자율주행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자동 승차 기능까지 갖췄다. 건설사 최초로 통신-관제 시스템과도 완벽히 연동된다.



7

## 건설사와 농업, 베이커리의 콜라보레이션

충남 서산 간척지에서 재배한 ‘가루쌀’은 밥상 대신 국내 유명 베이커리로 향한다. 현대건설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의 기반으로 서산 간척지에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대규모 스마트팜을 구축하고, 농지에 10만 평 규모의 전략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해 가루쌀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지역 농가와 협력해 생산한 가루쌀을 대전의 ‘성심당’과 인기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에 공급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건설사가 빵집과 협업을?’ 다소 의외지만, 지역 농업을 살리고, 트렌디한 식문화를 접목한 멋진 시도다. 건설, 농업, 그리고 문화가 ‘빵’ 하나로 하나 되는 순간이다.



## 브랜드를 듣다, 감성으로 완성한 공간의 선율

5

브랜드의 감성을 음악으로 표현한다면? 대우건설은 프리미엄 브랜드 ‘써밋SUMMIT’의 리뉴얼과 함께 브랜드 음악 앨범 The Monument, SUMMIT을 발표했다. 총 13곡으로 구성된 이 앨범은 브랜드가 추구하는 품격과 감성을 담고 있으며, 작곡가 강신욱이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멜론, 지니, 애플뮤직 등 주요 플랫폼에서 감상할 수 있다. 주거 공간에서 음악이 주는 감동을 느껴보자.

# 튼튼한 기술 위 유연한 상상력 한 스푼

단열, 차음, 내구성처럼 수치와 성능이 분명한 건축자재 분야에서 상상력이 왜 필요할까? 현장에서 벽돌은 단단해야 하지만, 벽돌을 쌓는 사고방식은 유연해야 한다. 모든 업무에 소소하지만 유용한 질문 하나를 더하는 것, 실무에 필요한 '상상력 루틴'이다.

글 편집실



## CASE 1.

### 계약에서 시작하는 상상 설계팀의 '기능 제한 질문법'

A설계팀은 단열재 리뉴얼 제품을 기획하며 '성능·디자인·단가'를 모두 잡으려고 고민하다가 벽에 부딪혔다. 한창 브레인스토밍을 하던 중 팀장은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 "이 중 단 하나의 기능만 살려야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계약을 전제로 한 상상은 아이러니하게도 더 깊은 아이디어를 끌어냈다. 결과적으로 '기능 중심의 레이아웃'이라는 설계 포인트를 도출했고, 이는 고객 프레젠테이션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살릴지에 대한 치열한 선택은 오히려 제품의 본질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 주었다.

**+상상 더하기** \_ 계약은 상상의 적이 아니다. 무제한보다 조건이 있을 때 오히려 사고가 뚝뚝해진다.

## CASE 2.

### 연결을 통한 확장 영업팀의 '타 업계 빌려 쓰기'

B영업팀은 프리미엄 단열재 신제품의 B2B 마케팅 전략을 고민 중이었다. 친환경·고단열 성능을 갖춘 제품이지만, 기존 시장에서 차별화된 인식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다. 회의 도중, 한 팀원이 말했다. "이 단열재가 뷰티 브랜드의 제품이라면 어떻게 소개할까?" "차단력, 밀착감, 지속력... 화장품처럼 표현해 보면 어떨까?" 이 의외의 질문이 시작점이 되어 광고 문구와 프레젠테이션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다. '숨 쉬는 단열' '도심의 온기를 지키는 필름' '건물에 바르는 피부막' 같은 새로운 표현들이 등장했고, 기존 자재 설명서 중심의 홍보가 아닌 감성형 콘텐츠로 전환되었다. SNS 콘텐츠, 제안서, 영상 등 다방면에서 이 접근이 활용되었고, 실제로 고객 반응도 이전보다 뜨거웠다.

**+상상 더하기** \_ 완전히 다른 업계의 언어를 빌려와 보자. 단열재를 화장품처럼, 벽을 피부처럼 바라보는 시선이 때로는 시장의 피로감을 뚫는 새로운 접근이 될 수 있다.

## CASE 3.

### 습관이 된 상상 생산기술팀의 '5분 질문 루틴'

C생산기술팀은 자동화 공정 개선 회의에 들어가기 전, 항상 한 가지 상상 질문으로 시작한다. "우리 현장을 시가 설계한다면 어떻게 바꿀까?" 이 질문은 공정의 문제점을 떠올리게 하고, 사람의 판단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상상하게 만든다. 단 5분의 질문이지만, 회의 집중도는 물론 개선 아이디어의 양도 현저히 증가했다. 이는 점차 '제안 문화'로 확대되어 팀 분위기까지 변화시켰다. 작은 질문에서 출발한 상상력은 조직 전체의 혁신 역량을 키우는 원동력이 되었고, 이는 생산 기술의 미래를 준비하는 힘으로 이어지고 있다.

**+상상 더하기** \_ 상상은 한 번의 번뜩이는 재치보다 반복이 중요하다. 짧고 단순한 질문도 반복하면 사고의 근육이 된다.

## TIP

### 유연함을 위한 체크리스트

당신의 업무는 얼마나 유연한가요? 상상력은 거창한 게 아니다. 기존 관점을 비틀어보는 것, 사소한 제약을 풀어보는 것, 그리고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실무자에게 필요한 '상상력 훈련'이다. 매일 다음 3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오늘 한 일 중 '그냥 늘 하던 방식'으로 처리한 업무는 없었나?

내가 속한 직무를 '전혀 다른 업계' 사람이 한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팀 회의에서 "기능을 하나만 살린다면?"과 같은 질문을 해본 적이 있었나?

### 책 속에서 찾는 상상력 개발법



#### 아이디어가 폭발하는 생각법 마이클 미칼코 저

세계적 창의력 전문가인 마이클 미칼코가 오랫동안 조사하고 연구해 정리한 창의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고 기법과 훈련법을 소개하는 책이다.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방법을 통해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저자는 누구라도 9가지 창의적 생각법을 활용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창의적으로 변신할 수 있고, 머릿속의 다양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끄집어낼 수 있다고 강조한다.



#### 생각의 탄생 로버트 루트번스타인, 미셸 루트번스타인 저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인슈타인, 파블로 피카소, 마르셀 뒤샹, 리처드 파인먼, 버지니아 울프, 제인 구달, 스트라빈스키, 마사 그레이엄 등 역사 속에서 뛰어난 창조성을 발휘한 사람들이 과학, 수학, 의학, 문학, 미술, 무용 등 분야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사용한 13가지 발상법을 생각의 단계별로 정리하고 있다. 저자는 창조성이 소수 천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제안하는 발상법을 활용하면 누구나 창조성의 대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벽산은 성장의 가치를 사회와 나누는 데서 의미를 찾는다. 국내외 곳곳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작은 실천이지만 일상의 변화를 만드는 힘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이웃과 미래를 향해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글 편집실



### 미얀마 취약계층 대상 세심한 배려 '눈길'

벽산은 미얀마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현지 교육 및 자립 등 전반적인 생활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생필품 등을 후원했다. 특히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이 누릴 수 있는 태권도장, 컴퓨터실, 도서관 등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데 집중했다. 인프라 구축 당시 현지 환율이 치솟아 난관이 예상됐지만 벽산의 이번 지원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지난 3월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던 중 강진이 발생하면서 벽산은 지진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만달레이 근교 캄나함 아웅미따산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들이 입은 피해를 감안해 생필품으로 쓰일 8kg 쌀 250포대를 비롯해 부족한 전력을 보강하기 위한 태양충전판 100개, 건물 내부 활동 시 필요한 충전식 백열전구 250개 등을 추가 후원했다. 미얀마 현지 강진 발생 당시 집을 잃은 250여 가구 중 170여 가구만이 강변에 천막을 짓고 살고 있으며, 나머지 80여 가구는 인근 학교운동장에 있는 임시 거처에 머물고 있는 안타까운 사정이 알려지면서 추가로 지원이 이뤄졌다. 김성식 벽산 대표이사는 "일회성에 그치는 단순한 기부보다는 약자들의 중추적 기반을 지원함으로써 자랑스러운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했다"라며 "가득이나 어려운 대내외적 변수가 많은 상황일수록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벽산의 이번 후원은 국내 건축자재 기업으로써는 최초로 제3세계 빈곤국가를 대상으로 한 단순한 아동 지원을 넘어 현지 교육 및 자립 등을 가능케 하는 중추적 기반 마련으로 평가할 수 있다. 더불어 지원대상인 아동들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 구축 및 생필품 등을 물밑 지원함으로써 세심하게 고민한 흔적이 엿보인다.

미얀마 현지 에덴하우스 내부 모습



## 함께 만드는 더 나은 내일, 벽산의 나눔 이야기

### 10대 여성 자립시설 환경 개선 봉사

지난 2013년부터 제도권 바깥의 10대 여성들의 자립 지원을 돕기 위해 후원을 이어오고 있는 벽산은 최근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늘푸른 교육센터의 건물 내부 페인트칠을 비롯해 청소와 시설 점검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봉사활동은 벽산 임직원 중 희망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자립을 준비하는 10대 여성들이 보다 밝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면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벽산은 지난 10여년 동안 대학교 등 정규학교 등록금을 지원하는 진학장학금과 자격증과 관련된 각종 교육기관 교육비 등을 후원하는 도전장학금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진로체험축제에 꾸준히 후원 및 참여하며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벽산 황성철 팀장은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한층 성장한 10대 여성들이 스스로 자립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는 생각에 동료들과 보람된 시간을 보냈다"고 말하면서 "입사 이후 꾸준히 벽산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함께 하면서 나눔의 긍정적 가치를 실천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새날에오면 늘푸른 교육센터의 생활공간 개선 봉사 진행



## #영우화스너 인수

### 벽산, 화스너제조 및 유통 전문기업 인수

건설업계가 지속적인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벽산은 화스너 및 에어타카 제조·유통 전문기업인 영우화스너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벽산은 지난 3월 25일, 해당 주식을 양도받는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했다. 영우화스너는 40년에 걸친 업력을 바탕으로 꾸준한 영업활동을 이어오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해왔다. 또한 1999년 미국 법인, 2007년 중국 법인을 설립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키워왔다. 미국시장 매출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기록할 만큼 해외시장에서의 글로벌 역량이 우수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벽산은 2024년 9월 미국에 현지 법인인 ELIM BRONTIER를 설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영우화스너 인수와 맞물려 벽산 미국법인의 성공적인 현지 정착 및 안정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김성식 벽산 대표이사는 "건축자재 및 산업 기자재 유통분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한편, 인수대상 기업의 해외사업 역량을 흡수함으로써 미국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수 후 양사는 전방위적인 시너지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상호협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 #친환경 기술 혁신

### 벽산, 광석 Zero 기반 기술개발 착수

벽산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있는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 개발사업에 선정돼 '광석 Zero 기반 산업부산물 배합비 최적화를 통한 플랜트 및 조 선 산업용 무기단열재 개발' 국책과제 2단계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벽산이 수행 중인 국책과제는 지난 2021년부터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고등기술연구원IAE, 조선대학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등과 공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참여기관 및 기업은 다품종 슬래그를 활용한 미세알루미늄 제조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상호 협력하고 있다. RIST는 여러 종류의 슬래그를 배합, 설계함으로써 공정 제어 및 물성평가 등을 진행하는 한편, 용융물 물성평가 및 공정온도 제어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IAE는 양 산설비 기술 및 공정조건 최적화를 목표로 슬래그 배합 및 용융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선대학교는 열역학 데이터 및 용융물 물성 기반의 무차원 해석을 바탕으로 용융 공정, 섬유화 공정 모델링 등을 통한 섬유 제조기술 최적화 및 고도화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KCL은 시제품 물성 및 내화성능 등을 평가한다. 특히 이번 연구의 핵심은 국내에서 매년 2,700만톤 가량 발생하는 슬래그를 활용해 자연광석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100% 슬래그 기반 배합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다. 벽산은 자연광석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시제품을 생산하는 한편, 용융 원료 및 섬유화 설비 등을 기반으로 한 섬유화 기술을 정립했다. 이는 시생산품에 대한 열전도율, 경량화, 평균 섬유 굵기 등 주요 물성평가를 진행함으로써 목표 성능을 실현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를 통해 향후 벽산은 업사이클링Upcycling 기술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단열재로써 슬래그를 활용해 자원순환성과 친환경성 등을 개선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벽산은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지속가능성 기반의 ESG경영이 가능토록 순환경제를 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가 만든 약속, 우리가 지켜갈 문화

# 벽산 리더의 약속과 LIFEWORLD DNA

벽산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함께 수많은 결정을 내리고, 다양한 팀과 협업하며 크고 작은 변화를 경험해 왔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의 분명한 믿음이 생겼다. 건강한 조직문화는 ‘따르라’는 명령이 아니라, ‘함께하자’는 약속에서 시작된다는 것.



### 약속은 선언이 아니라, '방식'이다

2024년 하반기, 전국의 벽산 부서장이 한자리에 모였다. 서로의 고민과 리더십 철학을 나누고 스스로를 돌아본 끝에, 하나의 공통된 결론에 도달했다. 그것은 바로, 벽산의 리더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 기준, 「벽산 리더의 약속」이다. 성과에 대한 책임, 팀원에 대한 존중, 공정한 피드백, 윤리적 리더십,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태도까지. 총 10가지 약속은 '좋은 리더가 되자'는 추상적인 다짐이 아니라, '벽산의 리더는 이렇게 일한다'는 명확한 원칙이자 일하는 방식이다. 이 약속은 새로 만든 것이 아니다. '격(통찰력과 전문성) / 익(주인의식과 손익 중심) / 동(집단지성과 진취적 실행)'이라는 벽산의 핵심가치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다듬은 것이다.

이 약속을 깊이 새기기 위해 우리는 '벽산 리더십 나무'를 만들었다. 나무의 잎은 리더가 세운 목표를, 열매는 그 목표가 성과로 이어졌을 때의 결과를 상징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나무는 자라고 있다. 지침이나 감시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약속을 실천하는 리더들의 꾸준한 행동 덕분이다. 앞으로도 이런 행동이 벽산의 리더십을 더 단단하고 풍성하게 키워갈 것이다.

### 일하는 방식이 곧 철학이 될 수 있을까

2025년 봄, 전사적인 팀빌딩 활동이 시작되었다. 두 달 동안 우리는 팀의 일하는 방식과 태도를 되돌아보며 '벽산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조직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지 깊이 고민했다. 그 과정에서 벽산인만의 12가지 일의 원칙을 담은 「Lifework DNA 벽산 Edition」을 완성했다. 이 원칙은 누군가의 독단적 생각이나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와 팀의 경험, 수많은 대화와 질문이 모여 만든 결과다. 여기엔 단순한 업무 지침이나 매뉴얼이 담겨 있지 않다. 우리가 일을 대하는 철학, 태도, 신념이 담긴 벽산인의 일하는 방식, 즉 일의 DNA다. 이 DNA 역시 「벽산 리더의 약속」처럼, '격/익/동'의 핵심가치를 실천 가능한 언어로 풀어낸 약속이다.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직접 만든 언어이자 스스로 정한 문화의 방식이기에 조직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다.

“작아 보이는 일을 해내는 사람이 결국 큰 일도 해낸다.”  
 “모르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질문하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다.”  
 “고민은 1배속, 실행은 2배속”

익숙한 문장들 속에는 단순한 조언을 넘어, 어떤 태도로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이 녹아 있다.

총 12개의 문장 하나 하나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어떤 문화를 만들어갈지를 보여주는 나침반이다. 이 문장들이 특별한 이유는, 누군가 만들어준 매뉴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직접 만들어낸 약속이라는 점이다. 우리의 약속이기에, 우리가 지킬 수 있다.

### 우리는 왜 이 약속을 지켜야 할까

「벽산 리더의 약속」과 「Lifework DNA」. 이 두 가지 약속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존중'과 '배려'라는 가치가 있다. 내 생각만 앞세우기보다 타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성과만을 요구하기보다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고민하며, 서로의 애쓰를 알아보고 인정하는 태도. 이런 마음들이 쌓일 때, 우리는 비로소 '벽산다운 문화'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 그 변화는 거창한 혁신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실천, 바로 나의 행동에서부터 시작된다.

### 벽산 리더의 약속

나는 벽산의 리더로서 '나의 업무와 팀원들을 책임'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 약속** 나는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 약속** 나는 경험을 내세우기보다 팀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겠습니다.
- 약속** 나는 팀원들에게 지시한 업무에 책임지겠습니다.
- 약속** 나는 명확한 의사결정과 신속한 피드백을 통하여 정확한 방향을 찾아가겠습니다.
- 약속** 나는 변화와 새로운 도전에 앞장서서 혁신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팀원들을 이끌겠습니다.
- 약속** 나는 따뜻한 칭찬과 충고로 팀원들을 육성하겠습니다.
- 약속** 나는 변화하는 모든 것에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고민하며 배우겠습니다.
- 약속** 나는 회사의 이익과 명예를 지키겠습니다.
- 약속** 나는 우리 팀을 업무로 통해 성공을 경험하며 성장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 약속** 나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남용하지 않는 윤리적인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 Lifework DNA

벽산 Edition

01. '원래' 라는 건 없다. 익숙한 일일수록 '왜 그렇게 하는가' 되묻는다.
02.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밀려오는 파도를 타는 사람이 앞서간다.
03. 모르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모르고도 질문하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다.
04. 프로는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

---

05. 작아 보이는 일을 해내는 사람이 결국 큰 일도 해낸다.
06. 정리되지 않은 자리는 정리되지 않은 생각이다.
07. 업무의 결과는 성과로 증명된다.
08. 정치(政治\_권력을 쫓다)하지 말고 정치(精誠\_정고하고 치밀하다)하자.

---

09. 돌보이지 않는다고 빛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조직이 빛나면 당신도 빛난다.
10. "나"만 힘드나, "너"도 힘들다." 한 번 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11.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 실패한 결과도 미래의 성과다.
12. 고민은 1배속, 실행은 2배속

# 상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

# 미래를 여는 질문

상상은 허황된 꿈이 아니라,  
 행동할 때 현실이 되는 미래의 첫걸음이다.  
 양혁주 실장, 박태양 목사,  
 최현락 코치가 전하는 질문과 상상의 힘은  
 우리 삶과 기업, 그리고 역사를 움직이는  
 미래의 원동력이다. 벽산인이 걸어갈  
 길을 비추는 나침반이 될 이야기를 전한다.



## 미래의 벽산인에게 보내는 편지

글 양혁주 실장

사람은 살아 있는 이야기를 만날 때,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기도 한다. 나 역시 그런 이야기를 하나 만난 적이 있다. 그 경험을 전하고 싶다. 엔지니어 전문가이자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지정범 작가의 『숫검댕이 뛰는 가슴』에 실린 한 편의 이야기다. 미래의 벽산인을 만들어 가는 데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어느 날, 한 청년이 퇴근길에 소나기를 만났다. 급히 차마 밑으로 몸을 피했는데, 이미 다섯 명이 뻥뻥하게 자리를 잡고 서 있었다. 그 순간, 한 아주머니가 가운데를 거칠게 밀치고 들어왔다. 그 바람에 가장 끝에 있던 청년이 밀려나 결국 비를 맞게 되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노인이 청년에게 말했다. “이봐, 젊은이. 세상이란 게 다 그런 거라네.” 잠시 뒤, 청년은 우산 다섯 개를 사 들고 돌아와 모두에게 나눠 주었다. 그리고 노인에게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 세상은 절대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청년을 바라보다가, 우산을 내려놓고 빗속으로 사라졌다.

이 이야기는 나에게 묻고 있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청년인가, 노인인가?” 사람은 누구나 나이와 상관없이 다양한 인생을 살아간다. 나이는 많지만 청년처럼 사는 이가 있고, 젊지만 노인처럼 살아가는 이도 있다. 그렇다면 노인이든 청년이든 ‘청년답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 질문에 대한 내 답은 ‘좋은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었다. 내가 품고 살아가는 질문은 세 가지다. 이 질문들은 나를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아이의 자리에서 어른의 자리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이끌어 주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톨스토이의 단편 『세 가지 질문』에 나오는 질문이기도 하다.

첫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언제인가?  
 둘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셋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인가?

톨스토이는 이에 대해 이렇게 답한다. “가장 소중한 시간은 지금이다.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가장 소중한 일은 지금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 사랑하는 일이다.”

첫 번째 질문은 삶을 과거, 현재, 미래 중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야 하는지 알려준다. 두 번째 질문은 수많은 사람 중 누구에게 시선을 두고 마음을 열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 세 번째 질문은 진정한 행복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풍요롭게 할 때 주어지는 값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오늘의 벽산인은 어제까지 살아온 벽산인의 삶이 만든 결과이며, 내일의 벽산인은 오늘까지 살아갈 벽산인의 삶이 만들어 갈 모습이다. 어제의 선택과 행동이 오늘의 삶을 만들었고, 오늘의 선택과 행동이 내일의 삶을 빚어낼 것이다. 그래서 인생에서는 어떤 질문을 품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그 질문이 곧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 선택과 행동의 방향을 안내하기 때문이다. 미래의 벽산인이 되고자 한다면, 인생의 나침반이 될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슴 깊이 품고 살아가야 한다. 그 질문을 품고 사는 하루하루가 쌓이면, 어느 날 미래의 벽산인은 지금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벽산인의 모습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미래의 벽산인을 응원한다.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그 길 위의 벽산인을 진심으로 존경한다.



## 하이 콘셉트 품기

글 박태양 목사



최근 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인류는 오랫동안 막연히 꿈꿔왔던 수많은 상상이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그 어느 때보다 크게 품고 있다. 그에 따라 상상<sup>Imagination</sup>, 창의력<sup>Creativity</sup>, 혁신<sup>Innovation</sup>이라는 단어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 셋은 구분은 가능하지만 본질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뇌과학과 깊이 맞닿아 있는 개념들이다. 이와 관련해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는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sup>Daniel Pink</sup>의 이론을 인용하여 ‘하이 콘셉트<sup>High Concept</sup>’와 ‘로우 콘셉트<sup>Low Concept</sup>’라는 개념을 설명한다.

하이 콘셉트란 단 하나의 질문이나 가정에서 출발하는 혁신적 상상이다. 예를 들어 “만약 공룡을 다시 이 시대에 되살릴 수 있다면?”이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영화가 바로 『쥬라기 공원』이다. 이 세계적인 블록버스터는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연출보다도, 개념 자체가 먼저 확정되며 제작이 진행되었다. 반면 로우 콘셉트는 특정 고객층이 선호할 만한 주제, 소재, 주인공 등을 분석하고 설계한 뒤 제작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전자의 경우 성공한다면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만큼 실패 가능성도 높다. 후자는 보다 안정적이지만 근본적인 혁신이나 시장의 판도를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개념을 기업에 적용해 보면, 자동차 제조업은 유관 산업이 방대하게 얽혀 있고 기술 격차도 크지 않아 구조적으로 로우 콘셉트에 가까운 산업이다. 혁신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이 지점을 정면으로 돌파했다. 전기자동차를 대담하게 상용화했을 뿐 아니라, ‘하이퍼루프(진공 튜브를 활용한 초고속 지상 운송 수단)’라는 개념을 최초로 제안했고 실제로 구현 중이다. “자동차도, 열차도 아닌데 비행기 속도로 땅 위를 달리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그 출발점이었다. 이는 하이 콘셉트의 대표적인 사례다.

요약하자면, 로우 콘셉트는 말이 더 잘 달릴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고, 하이 콘셉트는 말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물론 말에 날개를 다는 시도는 비현실적이며 허황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실현할 수만 있다면, 그 말은 더 이상 단순한 말이 아니다. 2차원의 평지를 달리던 존재에서 3차원의 공간을 나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다.

인류의 역사는 늘 이처럼 비현실적 상상을 현실로 바꾼 비저너리<sup>Visionary</sup>, 즉 ‘비전을 품은 사람들’에 의해 도약해 왔다. 세종대왕이 그랬고, 마틴 루터 킹 Jr.가 그랬고, 스티브 잡스가 그랬다. 이들은 ‘현실감이 결여된 사람’으로 여겨졌지만 결국 현실을 바꿔낸 인물들이다.

성경도 마찬가지다. 성경은 인간의 감정과 관계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로우 콘셉트적인 스토리로 가득 차 있다. 사랑과 배신,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 기쁨과 슬픔, 감사와 증오, 연합과 분열, 소망과 절망 같은 이야기가 다양한 배경 속에 펼쳐진다. 동시에 성경은 하이 콘셉트적 상상도 담고 있다. 다수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제를 강력하게 제시한다.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만약, 죽은 자가 살아난다면?”  
 “만약,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만약, 신이 나를 도와준다면?”

나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믿음’으로 갖고 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하이 콘셉트적인 상상을 하게 된다.

“머지않아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된다면?”  
 “벽산이 세계 최초, 최고의 건축 자재를 개발해 낸다면?”  
 “오대양 육대주 수십 곳에 벽산 해외 지사가 세워진다면?”

담대한 상상, 끊임없는 창의력, 지속적인 혁신이 이어진다면, 그리고 벽산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면, 이 모든 상상은 결코 허황된 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 상상은, 현실이 될 수 있다.

## 새로운 상상이 현실이 된 세상

글 최현락 코치



1517년,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수사이자 신학교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교회당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다. 이른바 종교개혁의 시작이다. 상상과 달리 이 반박문은 거창한 대자보가 아니었다. 지금으로 치면 학생들에게 공지를 알리는 학교 게시판 같은 공간에 붙인 간단한 공지문서였다. 그러나 그 작고 조용한 문서 하나가 유럽 사회의 흐름을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이끌어 갔다. 때로 우리는, 역사의 중심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엄청난 변혁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단순히 종교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았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이다. 중세 천 년은 유럽 전역이 종교와 사상 면에서 하나로 통합되어 있던 시대였다. 새로운 상상력이 끼어들 틈조차 없던, 평탄하고 단조로운 질서의 사회였다. 국가나 민족의 개념도 희미했다. 왕족과 귀족들은 가문 간의 혼인을 통해 혈통과 영토를 확장해 나갔고, 이러한 정략적 혼인은 때로 하나의 민족이나 나라의 운명을 단숨에 바꾸기도 했다.

당시 중세 교회의 정점에 있던 교황과 추기경의 권력은 종교 영역에만 머물지 않았다. 유럽의 유력 귀족 가문들이 교회의 고위직을 독점해 나가던 흐름 속에서,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에서 교황이 배출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신곡’으로 잘 알려진 단테 역시, 교황파와 황제파의 갈등 속에서 실각하고 피렌체에서 추방되어 방랑객이 되었다. 마르틴 루터로 인해 촉발한 종교개혁은 결국 유럽 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뒤흔드는 대변혁으로 이어졌다. 여기서 ‘항의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프로테스탄트’가 태동했다. 유럽은 더 이상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단일 지형이 아니게 되었고, 다양한 사상과 신학, 그리고 새로운 사회 시스템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지 종교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신교와

구교 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 이른바 30년 전쟁이 끝난 뒤 맺어진 베스트팔렌 조약은 유럽의 영토 지형을 지금의 형태로 바꾸어 놓았다. 다양한 국가들이 각기 다른 색채를 띠며 유럽을 채워갔고, 이들은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근대사회를 구축해 나갔다. 이후 대항해 시대가 도래했고, 세계는 식민지 쟁탈이라는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근대 유럽이 여타 대륙보다 먼저 혁신을 이루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도 계속된 전쟁들 속에서 유럽은 무기와 시스템을 끊임없이 개량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아이러니하게도 화약 기술을 전수해 준 중국을 군사력으로 압도하게 되었다. 그리고 1:2차 세계대전이라는 두 번의 참극은 전 세계를 포화 속에 몰아넣는 동시에,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수준의 시스템 혁신을 몰고 왔다. 효율적인 교통 체계, 대량 운송 시스템, 그리고 혁신적인 가전제품의 초기 모델들은 모두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다. 전쟁은 인간의 상상을 극한으로 밀어붙였고, 그 결과물은 지금의 삶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다. 역설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반복되었다. 과거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등장하던 화상회의, 원격 수업이 단 몇 달 만에 전 세계에서 일상이 되었다. 백신 개발은 더욱 극적이였다. 보통 10년 이상 걸리는 약품 개발 과정이 단 몇 달 만에 단축되었고, 인류는 상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목숨을 지켜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진부한 표현을 반복하고 싶지는 않다. 핵심은 따로 있다. 혁신은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반응한 누군가로부터 시작된다. 기존 시스템이 더는 작동하지 않을 때, 현재 방식으로는 눈앞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누군가 “차라리 내가 하겠다”는 심정으로 팔을 걷어붙일 때 변화는 시작된다. 그런 사람은 이미 새로운 세상을 미리 엿보고, 그 맛을 본 사람이다. 머릿속에 새로운 것을 상상해 낼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이미 실현 가능한 상태에 도달해 있는 것이다. 단지 실행되지 않았을 뿐이다. 누가 알겠는가. 중세의 무너진 시스템 속에서 부패를 견딜 수 없었던 한 수사가 종이 한 장을 교회 문에 붙였을 때, 그 작은 행동이 오늘의 세계를 만든 변화의 첫 단추였듯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상상도,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 Haa tz

1

## 하츠, 베트남 최대 건축박람회 'VIETBUILD 2025' 참가... 현지 시장 공략 나서

주방가전 전문 브랜드 (주)하츠가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VIETBUILD 2025' 건축자재 박람회에 참가하며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섰다.

비엠티빌드VIETBUILD는 2001년 시작된 베트남 최대 규모의 건축자재 박람회로, 건축 자재, 설계, 인테리어 관련 제품이 대거 전시되는 행사다. 올해는 호치민에서 총 4회에 걸쳐 개최된다.

하츠는 이번 박람회에 ■ 터치리스 후드(P70) ■ 로망스 후드 ■ 슬라이딩 후드(G70) ■ 프리스탠딩 가스쿡탑 ■ 2구 가스레인지 ■ 부딕크 및 코지 인덕션 ■ 복합환풍기 티오람-티오람X 등 다양한 주력 제품을 전시했다. 해외사업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참가를 통해 하츠는 현지 바이어 및 일반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소개하고, 베트남 내 잠재 유통 파트너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했다. 한편, 하츠는 오는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2025 IFA(국제가전박람회)'에도 참가해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2

## 하츠, BOSCH와 딜러십 계약 체결... 국내 프리미엄 가전 시장 공략 본격화

주방가전 전문 브랜드 (주)하츠가 글로벌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 BOSCH(보쉬)와 딜러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월 23일 밝혔다. BOSCH는 식기세척기, 인덕션, 냉장고, 세탁기 등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한 글로벌 브랜드로, 최신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을 접목해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다. 특히 지속 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 BOSCH의 제품들은 환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국내 레인지후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하츠는 이번 딜러십 계약을 계기로 BOSCH의 프리미엄 제품군을 국내 고급 주택 시장에 적극 도입하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양사는 단순한 유통 파트너십을 넘어 전략적 협력을 통해 한국 가전 시장 내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한층 향상된 생활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츠 김성식 대표는 "이번 협력을 통해 하츠는 보다 고급스러운 가전 솔루션을 고객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최

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BOSCH 관계자 역시 "이번 계약은 양사가 한국 시장에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전했다.

양사는 향후 다양한 마케팅과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국내 프리미엄 가전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B Network

## 벽산 네트워크



본사	서울시 중구 퇴계로 307 광희빌딩(10F, 14F)	02-2260-6114
중부지점	경기도 남양주시 송산로 131	031-528-0554
중부지점(수원)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여의동길 90-39	031-359-8657
중부지점(강원)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보통로 37	033-747-2995
대전지점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315번길 10	042-628-0823
광주지점	광주광역시 북구 비엔날레로155번길 19	062-523-0063
대구지점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91	053-565-0550
부산지점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남양산길 63	055-367-7880
전북영업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추천로 355	063-214-3493
인천영업소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76-24	032-578-2622
마산영업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용마로 126 석호빌딩 404호	055-299-5397
기술연구소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여의동길 90-39	070-4617-3655
익산공장	전북 익산시 서동로 675	063-830-8800
음성공장	충북 음성군 대소면 초금로71번길 144	043-877-2916
영동공장	충남 영동군 용산면 남부로 1500-42	043-742-0704
홍성공장	충남 홍성군 갈산면 산단로388번길 100	041-406-8007
여주공장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경충대로 1418	031-882-3434

## 하츠 네트워크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56 한석타워 10~12F	1644-0806
평택공장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202	031-370-7500
부산사업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총렬대로 146 (혜원빌딩 5F)	051-505-4551
대구사업소	대구광역시 동구 장동로 86 대성빌딩 11F	053-741-4102
호남사업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신로 136 본타워7F	062-941-6071
충청사업소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북로13번길 23-24 승암빌딩 2F	042-489-8033

## 벽산페인트 네트워크



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9, 904호(가산동, 벽산디지털밸리6차)	02-6958-3910
----	---	--------------

## 영우하스너 네트워크



본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로 203	031-902-4121
양산영업소	경남 양산시 산막공단남6길 13	055-383-4132

공간에  
**ZERO**  
를 더한다

대한민국 대표 건축자재 브랜드

